

## 4차과제 (관계) 의견서

조이름	작품명	연출자	이미지	질문이나 전하고 싶은 말
periwinkle	태도의 가치	최준혁		<p>너름 철학적인 주제인 이야기를 전달을 함으로써 대한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기제가 데스크를 청소하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청소기는 먼지와 쓰레기 등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행위, 즉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 안에 쌓는 것과 같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</p> <p>청춘 영화나 단편 영화를 보는 거 같은 스토리의 울림이 좋았습니다.</p> <p>준혁님이 생각하신 관계가 흥미롭게 잘 보이는 영상이었다 것 같습니다. 관심을 기울이는 행위로부터 관계가 시작한다는 내용의 영화 잘 봤습니다. 연출 의도 중 "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버라는 마음만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 역시 중요하다"는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.</p> <p>이야기의 구조는 자연스럽지만, 다소 인위적인 측면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.</p> <p>주인공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해 카페에 댓글을 남기는 모습이, 마치 어떤 한 학기 동안 다른 카페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던 영스텔 학우분들을 떠올리게 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. :)</p>
S2	프레임	김상철		<p>파격적인 액팅이 마음에 들었고 몰입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.</p> <p>덕선이 약하여 듣기가 살짝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. 자막을 사용하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</p> <p>내용은 좋았지만 대사가 조금 작위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잘 봤습니다.</p> <p>선배가 후배에게 소리치며 폭행(?)을 가할때 카메라 앵글이 현실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</p> <p>재밌는 연출과 싸움 신으로 재밌게 봤지만 두 인물이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</p> <p>고생 많았습니다.</p>
unfinished pieces	늦어버린 뒤	방천호		<p>제가 해석했을 때는 주인공은 친구를 의심했던 것이 아닌 주인공을 짝사랑하던 상태로 봤습니다. 해준 하는 보는 사람에 따라 어떤 다른 해석이 나오는 점이 재밌습니다.</p> <p>촬영이 영상 퀄리티 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스토리텔링이 조금 아쉬웠습니다. 잘 봤습니다.</p> <p>전체적으로 헤드폰이 작곡기 같아 아름답습니다.</p> <p>흥미로운 이야기였지만 생각해 보니 잘못을 한 주인공이 괜히 역정을 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</p> <p>한 학기 동안 중국 유학생분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! 중국어로 연기를 하시고, 자막을 달아주셔서 감사하며 중국 단편영화를 감상하는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. 또, 매년 주제나 스토리는 조금씩 달랐지만 영상에서 unfinished pieces 조 특유의 감성적인 학기 동안 연결되는 듯 하여 인상 깊었습니다!</p>
찍어보조	사람의 기술	정지원		<p>마지막 컷에 큰 나무 아래에서 고백하는 신은 의도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나무 꼭대기가 있어 둘을 분리해서 신이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었다. 그리고 결국에 객역을 한 건지 아니면 차인 건지도 궁금하다.</p> <p>봄이아기가 등장할 장면은 좀 아쉬웠습니다. 그래도 촬영이 좋아서 잘 봤습니다.</p> <p>와이드한 앵글이 좋았으나 사운드와 거리감이 잘 안 느껴져 아쉬웠습니다.</p> <p>꽃꽂이 사람의 감정이 이야기에 잘 드러났지만 그 계기나 상세한 내용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.</p>
세븐틴	매일의 우연	갈의		<p>뮤직비디오 느낌이 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.</p> <p>우선 지하철에서 어떻게 찍으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. 어떻게 사람이 없을 때 찍으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.</p> <p>영상만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4차 주제에 맞는 과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</p> <p>남자 주인공은 왜 가방 태클 때지 않았나요?</p> <p>여자 주인공이 지하철에서 내릴 때 여자 주인공의 뒷모습 컷에서 좌석에 가다건너 놓쳐 있었는데 의도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.</p> <p>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, 마지막 컷에서 "앗" 외침은 편집해야 했던 부분인 아닌가 싶네요.</p> <p>배우들 얼굴이 좋았던 작품 같습니다. 잘 봤습니다. 봄이아기를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.</p> <p>의도인지 모르겠으나 배우의 대사가 너무 안 들리고 소울(?) 잡음(?)이 비교적 큰 거 같아 아름답습니다.</p> <p>영상 연출력은 뛰어났지만 남녀의 사랑의 계기라던가 이야기의 구조가 다소 빈약해보였습니다.</p>
팔색조	불안과 편견	전민서		<p>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.</p> <p>전체적으로 영상이 좋았습니다. 그런데 이야기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</p> <p>슬리퍼를 신은 사람, 피자를 먹는 사람,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을 통해 결정을 발견한다고 하셨습니다. 최종적으로 주인공은 피자를 먹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며 벽을 허무는데, 왜 하필 다른 인물이 아닌 피자 먹는 사람이 이어야 했는지에 대한 연출적 이유가 있을까요?</p> <p>좋은 소재이고 그 예민함이 영상에 잘 드러났지만 개인적으로 결말 부분이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.</p> <p>sd 카드 이슈로 삭제된 장면이 있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, 제가 다 삭제할 정도로 아쉬웠습니다.ㅠㅠ... 그래도 변화되기 전, 예민한 주인공의 성격이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느껴져서 기억에 남았습니다!!</p>
QAS	이별의 끝에서	이태우		<p>마지막 앵글이 한 구도로만 오래 지속되어 지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스토리는 창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.</p> <p>QnA 시간 때 여자가 슬피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남자친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차분하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. 제가 영상을 본 이후에 느꼈던 점, 소감을 말해보자면, 10년이라는 연애 기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. 그 오랜 기간동안 연애를 한 것인데, 과연 아무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해도, 내 눈 앞에서 나의 남자친구가 차에 치이고 결국 죽게 되었는대 태연할 수 있을까?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어쩌면, 여주는 태연한 것이 아닌, 아제는 남자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.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답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.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:)</p> <p>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도 연출이 너무 좋고, 두 사람의 관계가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잘 봤습니다.</p> <p>이야기의 소재는 신기하고 재밌게 봤지만 헤어친 이후 찾는 컵을이라는 공간이 잘 가지는 않았다.</p> <p>남자친구의 컵을 열어보았을 때, 뒤에서 잠깐 환상처럼 나타나는 장면이 엄청 으스스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. 마지막 부분에 계단에서 기둥을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 마치 신이 그어져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, 또 여자 배우 분의 검은 옷이 죽은 남자친구를 추모하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! 이와 대비되게 남자 배우 분의 옷은 흰 셔츠라서, 죽은 후 찾아가는 천사/영혼의 모습과 잘 어울렸는데.</p> <p>다만 개인적으로 이 둘의 디테일한 서사가 궁금한데, Q&amp;A 때 미처 나누지 못한 질의응답이나 연출이나 해설을 카페에 올려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:!!</p> <p>촬영은 정말 잘했고 창의성도 매우 독특했습니다. 다만 계단에 앉아서 대화하는 장면이 조금 길어서 보는 중에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</p>
마감조	시퍼런 추억	이승민		<p>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스토리와 연출은 굉장했다고 생각합니다.</p> <p>워낙 큰 규모로 제작을 하긴 했지만 무엇을 표현하려 하는 지 잘 모르겠다.</p> <p>수업 시간 때 여주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어쩌면 여주는 다른 남자에게 고백했다가 차서(순에 들고 있던 꽃이) 객역을 사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? 그에게 복수 아닌 복수를 하기 위해 불나방 같은 하루를 남자 주인공과 보낸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. 멋진 작품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. :)</p> <p>세인이는 왜 다음날 나타나지 않았는지, 제목을 왜 시퍼런 추억이 아닌 시퍼런 추억으로 지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이 너무 이쁜 거 같습니다.</p> <p>영상미는 정말 예뻐서 이야기의 구조가 긴 영상임에도 미완으로 남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.</p> <p>지퍼 풀자 보는 느낌이라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! '시퍼런'이라는 형용사가 주는 섬뜩함이 여주인공 '세인'이 주는 기묘하고 마치 혼령과도 같은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으나, 또 이 둘이 서로 공감하는 시간대가 '세인'이라는 점에서 어울리지 않으나 '시퍼런'이라는 점에서 '시퍼런'이 느껴지는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! 카페에 올려주실 연출님의 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!!</p> <p>화면 연출과 제작이 모두 훌륭해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.</p>
남정네들	인턴사원의 하루	김민우		<p>코믹한 부분을 잘 살려 재미있게 본 작품중 하나였습니다.</p> <p>배우분이 담배를 인에 털어 넣으셨을 때 아찔했습니다. 재밌게 잘 봤습니다!-!</p> <p>칭찬하면서 동시에 아쉬운점으로 영화보다는 스케치 코미디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</p> <p>회사생활의 관계에서 공간이 많이 될 포인트가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다만 제가 기대했던 것 보다는 민우님 연출이 독창적이거나, 실험적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서 아쉬운 지점이 여러개 있었습니다. 그래도 잘 봤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</p> <p>다들 도전하지 않은 코미디 장르여서 좋았고 마지막엔 공감을 형성하여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.</p> <p>광경을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했고 말씀하셨던 기억에 남습니다! 실제로 영상을 보면서 광기가 주는 느낌을 받았던 터라, Q&amp;A 답변이 더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!</p> <p>이번 학기 작품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습니다. 선택한 주제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, 연출도 현실과 잘 맞아 더욱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서사 방식이 매우 자연스럽고 편안해서 어느새 끝까지 보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.</p>
세븐틴	빈자리	강유나		<p>친구가 왜 옆자리로 이동을 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</p> <p>웃을 갈아입으며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신 것이 좋았습니다. 수업 시간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지만, 새로운 친구가 주인공에게 말을 걸게 된 이유를 조금 더 풀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!</p> <p>영상만 봐서는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는지 알기 쉽지 않은 거 같아 아쉬웠습니다.</p> <p>친구의 우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좋은 영상이지만 감작스럽게 만들어진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했다.</p> <p>개인적으로 인연관계는 이 시립하고 친하게 지냈다가, 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것처럼,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깝게 지내는 주변 인물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영상이 어렵게 다가왔습니다! 다만, 친하게 지내다 헤어지는 역할이 등장할 때 가법이나 노트를 내려놓는 소리가 다소 크고 날카롭게 들었던 것 같아서 편집 때 볼륨조절을 조금 더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</p> <p>또 해당 영상 로케이션이 제가 영상편집 워크숍을 수강하는 강의실이라 반갑기도 했습니다! :*</p> <p>강의를 내부에서 촬영해서인지, 나중에 편집으로 만져서서인지는 모르겠지만, 중간에 광장이 파란? 하늘색 색감으로 보였던 장면들이 상쾌한 느낌을 주어서 좋았습니다!</p>
상호상조	이별의 폴라로이드	김건우		<p>이별의 과정을 도구를 사용해 창의적으로 표현한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</p>